

앤서니 J. 토마시노 박사, 십계명

2차시: 계명 1: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앤서니 J. 토마시노 박사님의 십계명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2차시, 1계명: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자, 이제 십계명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첫 번째 계명인 "너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집을 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렇죠? 아마 혼자서 모든 걸 다 하지는 못할 겁니다. 집을 짓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원될 겁니다. 그럼 누구를 고용하겠어요? 아마 기초 공사를 할 사람, 배관 공사를 할 사람, 배선 공사를 할 사람, 건식벽체 공사를 할 사람, 지붕 공사를 할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집의 특정 구역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일 겁니다. 자, 어느 날 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러 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없어진 걸 보게 된다면 어떻게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당신 집, 당신 땅에서 일하는 사람 한 명만 있었어요. 그는 정말 미친 듯이 일하고 있고, 정말 잘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봐 요, 무슨 일이에요?"라고 물었더니, "저는 밥입니다. 당신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리고 당신은 "정말요?"라고 묻습니다. 그는 "네."라고 말합니다. 그럼 제가 전부 다 하겠습니다. 설계도를 그럴게요.

지하실을 파고, 콘크리트를 붓고, 배관을 설치하고, 배선을 하고, 석고보드를 깔고, 모든 걸 다 해드릴게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할 거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싸고 더 빨리 할 거야. 밥이 자기 자격증을 보여 줬어.

정말 흠잡을 데가 없어요. "와, 꽤 괜찮아 보이는데."라고 하면, "좋아, 그럼 뭐가 문제지?"라고 묻죠. 밥은 "여기에 문제가 있어."라고 대답합니다.

나랑 같이 가려면 네가 고용한 다른 사람들도 다 가야 해. 누군가를 불러서 벽에 나사 하나 박으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계약은 무효야. 그리고 널 법정에 세우겠어.

자, 아시다시피, 밥을 여기 당신의 사람으로 고용하는 데 조금 주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믿으려면 당신 쪽에서 엄청난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첫 번째 계명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꽤 오랫동안 살았던 이집트 땅에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인들도 수많은 신들을 섬겼고, 그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도 이집트 신들을 숭배했다는 점에는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로마에서는 로마인들의 도를 따르고, 이집트에서는 이집트인들의 도를 따르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집트 신들을 숭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길 것인가?” 네. 아니면 강 건너편 땅에서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신들,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들도 그 신들을 섬길 것입니다. 너희는 가는 땅의 신들을 섬길 것인가? 우리는 고대 근동 전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바알을 섬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바알을 섬겼습니까? 하지만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려면 다른 모든 신들을 버리고 오직 나만을 섬겨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소 추문스러운 제안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백성, 그들이 신뢰하고 모든 신뢰를 한 분의 신, 오직 한 분의 신에게 두었던 모든 존재들.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지는 내용을 충분히 숙고하기 위해, 우리는 신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의 신 또는 여러 신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신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현대 할리우드가 재밌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에서는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마블의 세계에서 토르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누가 신이고, 그의 방식으로 인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신이 되게 하는 자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것은 어려운 질문이라고 말해야겠습니다.

사실 고대 그리스에서 이 문제에 대해 꽤 많은 연구를 해 봤는데, 아시다시피 그리스인들은 신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실제로 고찰한 최초의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정의를 내놓았습니다. “ 신이 란 무엇 인가? 불멸의 인간. 인간이란 무엇인가? 필멸의 신.”

그리스 신들의 행동을 살펴보면, 그들이 왜 때때로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 성경은 신에 대해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신만 을 섬겨야 한다 . 그게 무슨 뜻일까? 나는 어떤 신을 섬겨야 하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다. 우리는 신의 속성을 나열해 놓은 적이 없잖아.

전능하다, 의롭다, 심지어 그리스인들처럼 불멸하다 같은 단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단어들, 특히 구약성경 에서 '전능하다' 라는 단어가 '지극히 높으신' 또는 그런 종류의 단어로 번역된다는 것을 인식 해야 합니다. 번역이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들은 오늘날 우리가 갖는 것과 같은 함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의 '전능자' 는 현대 신학자에게 전능함이 의미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니다. 단지 다른 함의를 가졌을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위대하고 능하신 분이라는 것은 이해했지만, 문자 그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들은 구약성경에서 그런 개념을 탐구조차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는 일을 어떤 의미에서 신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여기에는 다른 신학적 함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몇몇 문헌은 고대 세계 사람들이 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믿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니다. 만약 그들이 같은 환경에 있었다면, 어쩌면 믿었을지도 모릅니니다.

하지만 몇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신을 뜻하는 전형적인 셈어 단어는 강력함을 뜻하는 단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니다. 바로 엘(E1)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며 , 고대 아카드어와 다른 메소포타미아어 형태에서는 엘루(E1u)로 불립니니다.

물론 '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 와 다양한 가나안 방언에 등장합니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신을 뜻하는 데 사용됩니니다. 수메르어 '딩거' 는 무슨 뜻인지는 모릅니니다.

이집트어 단어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중동 지역에서는 신이라는 개념이 영원이나 거룩함, 정의로움보다는 힘이나 위력의 개념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종류의 개념들은 속성일 수 있지만, 신의 가장 기본적인 공통 속성은 힘이라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 대부분에서는 신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이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영원히 존재하는 신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일부 우주의 기원설은 영원히 존재했습니다. 신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들은 태어났습니다.

신들은 어떤 식으로든 창조되었거나, 신들이 스스로를 창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이해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다른 것은 무엇이였을까요? 음, 많은 신들이 자연 현상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고대 바빌론의 정의의 신, 샤마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샤마쉬는 태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태양이 사물을 드러내고 명확하게 한다는 점에서 태양이라는 개념이 정의라는 개념과 연관될 수 있음은 분명합니다 .

정의는 때때로 사물을 분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내는 과정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농작물의 성장, 달, 바람의 움직임, 심지어 특정 종류의 바람과 같은 다른 것들은 특정 신과 연관될 수 있었습니다 . 따라서 자연 현상과 관련된 신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삶의 과정과 관련된 신들의 경우 도 있었습니다. 출산이나 전염병과 관련된 신들이 있는 것처럼요. 중동 사람들은 신을 어떤 의미에서 하늘에 사는 초능력을 가진 인간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과 인간의 차이점은 무엇이였을까요? 중동 사람들 대부분에게 가장 중요한 개념은 신이 그들만의 방식으로 불멸한다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리스의 헤라클레이토스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신이란 무엇인가? 불멸의 인간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이 고대 근동 문화권의 여러 곳에서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신이 인간, 특히 대부분 왕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고, 어떤 면에서는 다른 인간과도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정한 종류의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류학적 용어로 마나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신들이

헤카(heka)를 소유했다고 말했는데 , 이는 이집트어에서 마법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헤카가 많을수록 신으로서 더 강력하다는 뜻이죠. 알겠어요? 네, 이집트인들은 신을 인간과 동물의 형상을 모두 지닌 존재로 여겼어요. 동물의 형상이란 동물처럼 생긴 신을 뜻하죠. 그들에게는 마법의 에너지가 깃들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건 다르죠. 중동에는 동물 형상을 한 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에서는 거의 모든 신이 그에 상응하는 동물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어떤 면에서는 동물과 인간이 혼합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들이 인간을 대하는 태도는 신화마다, 문화마다 매우 달랐습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수메르에서 유래하여 전승되고 그 과정에서 변형된 고대 바빌로니아 신화를 읽어보면, 인간은 본래 신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인간들이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한 신들은 그들을 무시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대홍수 이야기는 인간들이 너무 많은 소란을 피우고 문제를 일으켜 신들이 밤에 잠을 이룰 수 없게 되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들은 인간들을 모두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바빌로니아 기록에 따르면, 대홍수 이후 인간들은 제물을 바쳤습니다. 신들은 인간들이 바친 제물의 달콤한 향기를 맡고 "어머 , 어쩌면 인간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지도 몰라." 라고 말했습니다. 즉 ,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들이 신들의 총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례에서는 신들이 인간에 대해 부정애적 이해, 심지어 모성애적 이해에 더 가깝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 그리고 특정 신들의 경우에는 인간에 대한 적대감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매우 다양한 아이디어.

신들은 자신의 본질의 일부를 사물에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 계명인 형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대 세계의 신들은 전형적으로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 첫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 신들을 살펴보세요. 이집트인들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림들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줬습니다.

이게 바로 당신의 녹색 신입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머리 위에 곡식 줄기가 꽃혀 있으니까요. 폭풍의 신은 손에 번개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여신과 전쟁의 여신. 웬지 모르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둘이 함께 있는 것 같다. 머리 위에 태양 원반을 든 태양신.

집, 난로, 그리고 물론 인터넷의 여신은 바스테트 여신입니다. 그리고 여기 머리 위에 초승달이 있는 달의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신들은 각자 자기가 일하는 영역이나 영역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힘으로 여겨지는 신은 거의 없었습니다. 마르두크는 때때로 그에 꽤 가까웠 습니다 . 마르두크에 대한 시들도 있습니다.

그는 바빌로니아인들의 최고 폭풍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마르두크에 대한 그들의 시에서 마르두크가 온갖 영역과 그 외의 모든 권능을 가진 것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들은 자기들의 길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풍년을 기원하면 전쟁의 신에게 기도하지 않았습디다. 비의 신이나 들판의 신에게 기도했죠. 아이를 낳고 싶으면 출산의 수호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전문가들에게 가셨죠. 그 전문가들 모두 각자 분야에서 실력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 립서비스를 하셨죠.

하지만 인생의 특별한 순간에는 도움이 필요하고 원하는 특정 신에게 기도하게 됩니다. 큰 신들 외에도,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대개 국가적 신들인데, 마르두크는 대부분 바빌론의 수호신입니다. 그리고 엘과 바알도 있죠.

그 모든 게 좀 복잡하긴 합니다. 하지만 시리아인들의 수호신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인 엘과, 젊은 폭풍의 신 바알 같은 존재가 어떤 면에서는 바알을 대체하는 존재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악마나 악령, 심지어는 임프처럼 생각하는 존재들 중 일부는 고대 문헌에서 신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남자는 베즈입니다. 이집트에서 온 다산의 신이었죠. 난쟁이 같은 모습으로 묘사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출산의 신이자 수호신으로 숭배받았습니다. 개인이나 가족은 종종 자신을 위해 중재해 줄 개인적인 신들을 두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들을 일종의 성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개인적인 신들에게 기도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신에게 위대한 신에게 중재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바알을 귀찮게 하고 싶진 않지만, 제 신께 말씀드리면, 제 신께서 바알에게 제게 메시지를 전하러 오실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 신들은 형상으로 표현되었죠. 히브리어로는 테라핌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유래했는지, 무슨 뜻인지 아무도 정확히 모르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랍비들은 이 단어가 멸시받거나 혐오스러운 것과 같은 뜻의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럴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네, 정말 그 단어는 신비롭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종종 단순히 이미지로 번역되고, 때로는 트라빔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가라는 사람은 신당을 가지고 있었는데, 에봇과 트라빔을 만들고 아들 중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테라핌 은 히브리어로 복수형이지만, 일반적으로 단수로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단수형 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와 매우 유사합니다 .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신'을 뜻합니다. 히브리어 복수형인데, 위엄이나 힘, 혹은 권능의 문이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강력한 무언가를 생각할 때, 때때로 복수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테라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분명히 하나의 사물을 가리키는 데 자주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사기의 미가는 일종의 점술 도구인 에봇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신전에는 테라핌, 즉 여신, 즉 인격신 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물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는 착한 유대인 소년이지만, 그건 시대착오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는 착한 이스라엘 소년이고 주님을 경배하지만, 자신의 사당에 자신만의 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미갈, 미갈은 누구입니까? 그녀는 다윗 왕의 아내였습니다.

음, 이 시점에서는 다윗 왕이 아니라 사울 왕의 딸,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미갈이 트라빔을 가져다가 침대에 두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몰래 성 밖으로 나가려고 했고, 사울 을 궤도 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사울에게 다윗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집안의 우상인 드라빔을 가져다가 침대 에 놓고 담요를 그 주위에 덮어 마치 침대에 누군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만약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린다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좋아, 우리에게 신이 있는데, 그냥 이 침대 에 눕혀놓고 다윗인 척하자"는 식이죠. 네. 테라핌 때문에 그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스가라서에 따르면, 점쟁이는 거짓을 보고, 꿈꾸는 자는 거짓된 꿈을 꾸고 헛된 위로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었으며, 기본적으로 하찮은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사실, 라헬 이야기에서, 라헬이 아버지 라반에게서 도망칠 때 드라빔을 챙겨 땅에 놓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라반이 그들을 따라잡았을 때, 그는 " 왜 내 신들을 가져갔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드라빔이라는 우상은 신성, 즉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과 어떻게 다를까요? 우선 , 모세 시대의 일반적인 신 개념은 이웃 사람들의 신 개념 과 비슷 했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들은 무지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신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배워가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쯤이면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을 여러 신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신은 감히 그들에게 "다른 누구도 숭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좋아요, 야훼님, 당신의 전문 분야는 무엇인가요? 특별히 잘하는 게 뭐죠? 그런 상황 에서라면 그들이 묻는 건 당연한 질문이었을 거예요 . 그들은 분명히 신이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죠. 신이 인간이라고 생각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은 신을 매우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했습니다. 신은 손이 있고, 신은 머리가 있었습니다.

신께서 뒷면도 말씀하셨죠. 아시잖아요. 모세가 신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했을 때, 신께서 "안 돼 , 내 얼굴을 볼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신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하지만 내가 뭘 할지 말해 줄게. 너를 바위 틈 에 집어넣을 거야 . 바위 틈에 내 손을 얹을 거야.

내가 지나갈게. 그리고 지나간 후에 손을 떼. 내가 지나갈 때 내 뒷모습이 보일 거야.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분명히 아주 인간적인 신, 아주 위대한 인간적인 신을 암시합니다. 야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죠. 네, 일단 그들이 그 언약을 맺으면, 야훼가 그들의 특별한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특별한 백성이심을 암시하는 관계가 됩니다.

마르두크가 바빌론의 신이었던 것처럼, 아테나가 아테네의 수호신이었던 것처럼, 그들은 야훼를 자신들의 신으로 믿었습니다. 다른 신은 없다고 믿었을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들이 언제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야훼는 전쟁의 신으로 널리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그가 자주 "전쟁의 사람"으로 불렸기 때문에 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종종 "야훼 사바오트"로 불립니다. 사바오트는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야훼는 만군의 신, 군대의 신이 시죠.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 분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마치 폭풍의 신 같은 존재일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들은 야훼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글썄요, 누가 알겠어요? 우리 현대인들, 특히 현대 신학자들이 신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은 아니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성경 여러 구절에서 신의 회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구절과 묘사는 욥기 서두에 나오는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무슨 뜻일까요? 분명히 신성한 회의, 즉 집단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읽어보면 마치 이사회처럼 들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여러 아들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사탄, 곧 대적에게서도 보고를 받습니다. 사탄은 그에게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누가 믿을 만하고 누가 믿을 만하지 않은지 말해 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한 구절일 뿐입니다. 다른 구절들도 있다는 뜻입니다.

시편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엘로힘, 즉 신들 사이에 서 계신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다른 구절들에서도 신들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는 여러 신들에 대해 언급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그 모든 신들 위에 계시지만, 다른 신적 존재의 존재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적어도 이 초기 시대, 그리고 어쩌면 그보다 조금 더 후에 어떤 영이든 어떤 의미에서는 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신과 악마를 크게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과 천사 사이에도 큰 구분을 두지 않았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영적 존재가 신성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시대에는 모호함과 혼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위엄 있고 위엄으로 영광스러우시며 기사를 행하시는 자가 누구니이까? 출애굽기 15:11. 그러므로 여기서 여호와와는 다른 신들보다 뛰어나시지만, 반드시 그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민수기 33:4에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신들에게도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신들이 있다는 뜻일까요? 자, 시편 82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은 신들의 의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셨습니다. 신들 가운데서 심판을 주관하십니다. 따라서 이 구절들 중 다수는 복수성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 주님과 주변 국가들의 신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음, 공식적인 신통기(神統記)는 없습니다. 제가 공식적인 신통기(神統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당연히 신통기는 신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음, 대부분의 신들은 그들의 기원을 묘사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훼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령 존재한다 하더라도 성경은 그것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결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바빌론이나 아시리아 사람들은 바알이 엘을 대체하고 신들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만,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보존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야훼가 신들의 의회의 수장이 된 이유와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거부했습니다. 그것들은 성경에 기록된 공식적인 계시된 진리의 일부가 되지 못했습니다.

야훼는 만물의 창조주이자 유지자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개념이 이스라엘 종교에 언제 도입되었을까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바알과는 달리 야훼는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뿐 아니라 만물을 존재하게 한 분으로

여겨진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집트의 신들 등에서도 이러한 요소들과 어느 정도 유사점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야훼 이해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읽어 보세요. 신들과 신들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로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 신화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퍼뜨렸죠. 그 신화들을 읽어보면, 신들이 실제로 꽤 심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 말은, 그들은 살인, 간통, 거짓말, 인간을 똥처럼 취급하고 강간까지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정의를 원할 때는 신들에게 가서 정의를 내려달라고 요구했죠. 하지만 신들 자체가 불의했다는 걸 아시죠? 중동 사람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신들이 도덕성을 본보기로 삼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구약성서에서는 이 점이 분명히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함은 반드시 도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윤리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후에 주님께서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율법과 명제, 그리고 그분이 정하신 여러 가지 규정들을 제시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당신 백성의 윤리를 당신의 윤리에 기반하여 세우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백성이 그분이 요구하는 기준뿐 아니라, 그분이 그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시는 기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 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하는 질문 중 하나는 “내 앞에”라는 구절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히브리인들에게 “내 앞에 ”라는 단어 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나보다 위에”, “나와 함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섬기기 전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먼저 내게 마땅한 것을 드려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섬길 수 있다. 나와 같은 지위를 가진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이것도 또 다른 가능성입니다.

아니면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임재란 무엇일까요? 아마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주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계신 곳에는 다른 신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모세 오경의 나머지 부분과 선지서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의 의미가 유일신을 경배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 생각 에는, 비록 직접적인 맥락이나 더 큰 맥락에서 모호할지라도,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꽤 명확합니다 .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각 민족은 자기 신들의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영원히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빛 가운데 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의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뭘 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의 신, 오직 한 분의 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유일신교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인가요? 단일신교(Henotheism)입니다.

일신교는 한 번에 오직 한 분의 신만을 섬긴다는 사상입니다. 일신교는 오직 한 분의 신만 존재하며,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상입니다.

일신교는 다른 신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오직 한 신만 숭배한다고 말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고대 세계에서는 이 두 신 중 어느 것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유일신만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신들이 많았죠. 모두가 신을 많이 모셨죠. 대개는 주된 신이 하나뿐이지만, 다른 신들도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서도 유일신교라는 개념,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일신을 믿었다는 개념은 고대 근동 지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유일신교라고 부를 수 있는 개념의 초기 징후는 기원전 500년경에 나타났습니다. 이집트에서 이단 왕 아케나텐이 태양 원반 외에는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을 금지했던 시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우리가 일신교라고 부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파라오가 스스로 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는 파라오였고, 그 시대는 후대 사람들이 그에 대한 모든 증거를 없애려고 했기 때문에 다소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집트 종교 학자들은 아크나텐의 종교를 일신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후기 예언서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이야기하겠지만, 일부 후기 예언서에는 다른 신의 존재를 명백히 부정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 시대에 첫 번째 계명이 주어졌을 당시 이스라엘은 일신교를 신봉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오직 한 분의 신만을 섬겨야 합니다. 다른 신들이 있을까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들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섬길 것이며,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들은 이스라엘이 오직 주님만 경배해야 한다고 선포했지만, 이스라엘과 유다는 끊임없이 다른 신들을 경배하는 데 끌립니다. 바로 이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 문제를 들여다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

그리고 증거는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선지자들이 과장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는 우상 숭배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니다.

저는 정말 존경받는 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고학은 선지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실제로 다신교, 즉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풍습이 상당히 많았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이사야 44장 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는 우리가 유일신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꽤 확실한 진술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유일한 것이라면, 만약 그것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진술이라면, 우리는 아마도 “음, 어쩌면 과장법이나 다른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했을지도 몰라요.”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사야서를 살펴보면, 이사야는 후반부에서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주장을 반복해서 제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선지서에서 우리는 그것이 단지 가정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은 , 우리가 보는 바에 따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서원에 함축된 의미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한 일 때문에 너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다. 내가 내 것을 바쳤고, 이 유익을 가져왔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너에게 보여 주었다. 이집트의 신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보여 주었다.

당신은 오직 저만 믿어야 합니다 .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 당신은 그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빵사, 사업가, 음악가, 의사 등등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신들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오직 한 분의 신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은 바로 당신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주님이십니다.

네, 맞아요. 큰 문제가 생기면, 보통 우리 일상에서는 전문가에게 가죠, 그렇죠? 하지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너희의 전문가이기도 하다 . 농작물이 잘 자라기를 원한다면 내게로 오너라. 싸움에서 이기고 싶다면 내게로 오너라."

아내가 출산 후 살아남기를 바란다면 내게 오너라. 이건 정말 혁명적이었다. 당시 존재했던 어떤 왕국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었다.

? 그러니까 성경의 맥락에서 이 계명은 정말 중요한 계명이에요. 사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 중 하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고고학적, 성경적 증거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일반적으로 야훼를 주된 신으로, 때로는 오직 야훼만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아는 방법 중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름에는 우리가 신령한 요소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신령한 요소는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예 를 들어, 예레미야 같은 이름이나, 이름 끝에 '야'가 붙은 이름도 신령한 요소라고 부르는데, 야훼를 지칭합니다.

예사야후, 아시다시피 마지막에 나오는 야후는 주님을 지칭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이름에는 야훼를 지칭하는 신령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름들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신령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예를 들어 다니엘, 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바알 같은 다른 신들을 지칭하는 신령한 요소를 가진 이름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드뭅니다. 가끔씩 등장하긴 하지만, 매우 드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전형적으로 주님,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데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실패를 설명하는 데 이 첫 번째 계명만큼 주목을 받는 계명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왜 적들에게 패배했을까요? 그들이 오직 주님만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일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놀라운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는 바빌론으로 끌려가 바빌론에 앉아 온갖 이상한 환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일어나는 일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영으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셔서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성전에서 이집트 신들을 숭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떠오르는 태양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네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분노하시는 가장 큰 이유다." 맞습니까? 우리가 구약성경의 핵심이라고 부르는 신명기를 이해하는 열쇠는 바로 쉼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 "

그 언약, 오직 그 언약만을 고수하라는 부르심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존재를 다하고, 멜로디카 (보통 힘이나 능력 등으로 번역되는)를 사용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본적으로 당신이 가진 다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신을 숭배할 여지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쉼마 에 근거하여 다신교, 즉 여러 신을 숭배할 자리는 없습니다 .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실패의 핵심입니다.

그들이 왜 나쁜 짓을 할까요? 주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신약 성경까지 확대하는 것은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매우 흥미로운 관찰을 합니다. 특히 헬라인들, 특히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을 비난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동물이나 사람, 그런 것들과 바꾸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부도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타락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그렇게 되는 것은 그들의 신학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유다 사람들은 나중에 온갖 죄악으로 하나님께 정죄받고 심판받지만, 결국은 그들이 주님께 충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부터 9절까지, 만일 너나 네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두는 내 계명과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집에서 끊어 버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그것을 내 앞에서 버리리라. 아니요, 여기에는 그들이 사람을 살해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들이 간음했는지는 언급되지 않았고, 도둑질했는지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 내가 그들을 끊어 버리겠다, 알았지?” 이 집은 폐허 더미가 될 것이고, 모두가 놀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이 땅과 이 집에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은 그들이 주 하나님, 곧 그들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첫째 계명을 지키지 못한 데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 충실 하지 못하는 것은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그리고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다른 예언자들의 주요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방 신들에 대한 열광은 바빌론 유배 기간 동안 사그라들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유배 이후의 예언자들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이 주제를 강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을 겪고, 유배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이방 신들에 대한 그들의 집착은 대부분 끝났습니다. 예를 들어 역대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배교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크게 축소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에는 이스라엘 왕들이 주님께 충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언급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솔로몬은 이교 신들을 섬겼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역대기에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넘기죠. 왜냐고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니까요.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통혼이 배교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였음을 인정했지만, 당시에는 배교를 문제로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학개와 스가라는 제의 회복에 초점을 맞춥니다. 말라기는 제의적, 사회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만, 당시 이스라엘이 이교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이교 신들을 숭배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땅 밖에서는 유대인들이 다른 곳에 흩어져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처럼 주님께 충실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집트 제국, 즉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식민지에서 온 아마르나 서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소위 혼합주의의 증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기에서도 에스더와 모르드개라는 두 영웅이 등장하는데, 두 사람 모두 이교 신들의 이름에서 유래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여신 이슈타르의 이름에서 유래했고, 모르드개의 이름은 마르두크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경계를 유지하는 데 그다지 신중하지 않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나름대로 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는 혼합주의와 잠시 접촉하기도 했습니다.

일어났던 안티오키아 반란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마카베오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예루살렘 땅의 일부 사람들이 주변 다른 모든 민족들처럼 하늘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더 이롭다고 결정했다는 것 입니다. 모두가 자신들의 우상들을 제우스, 즉 제우스 우라누스와 동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는 "이봐,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해야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제우스와 동일시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건 또 다른 이야기지만요. 어쨌든, 그런 시도는 잠깐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신을 숭배한다고 주장하는 혼합주의 종교를 버락치기로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네,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에서 첫 번째 계명을 볼 수 있나요? 사실, 첫 번째 계명은 신약에서 한 번도 인용된 적이 없습니다.

흥미롭네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표현, 즉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으로 부르신 쉼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

이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의미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이 바로 거기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바울은 이교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그는 “우리는 이교 신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는 “이교 신들은 악마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결정하세요, 폴. 어쨌든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교 신 숭배에 참여하지 말라고 권고하는데, 현명한 처사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계신 분들은 기독교와 유일신에 대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시죠.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와 초기 교회 시대에는 이교 신들이 분명히 존재했지만, 당시 세상의 종교 체계는 다소 불안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옛 이교 신앙의 잔재, 즉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신 숭배 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미트라 숭배 같은 것도 있고, 다양한 신을 숭배하는 다른 이교 종교들이 곳곳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숭배, 즉 로마의 정신을 숭배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유일신, 오직 유일신만을 숭배해야 한다는 생각에 매우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계명을 어기기보다는 기꺼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좋아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꺼내볼까요? 이게 제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고대 로마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현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마치 고대 로마를 닮아가는 듯한 기묘한 소름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성공회 신자보다 불교 신자가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 단체는, 수표를 발행할 때 위에 언급된 어떤 종교에도 속하지 않는 단체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이 책을 썼을 당시에는 미국인의 80% 이상이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는 미국인의 63%가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무슬림 그룹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불교도 그룹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힌두교도도 있지만, 그 수는 적지만 다양한 종교가 존재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에서 이교 신들을 몰아내라는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이교 신들을 몰아내라는 명령을 주신 것이지, 우리 사회에서 이교 신들을 몰아내라는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황제의 동상을 철거하라는 청원서를 제출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적 힘을 사용하여 나라를 기독교화하려는 시도는 나중에 등장했는데, 기독교와 교회의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다른 종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에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종교가 같은 신을 섬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미국 대통령들께서도 "우리 모두 같은 신을 이름만 다를 뿐 섬기고 있다는 헛소리,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신들의 속성은 모두 다릅니다.

신에 대한 개념은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다양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신에게 접근하는 방식도, 숭배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큐메니즘, 에큐메니칼 활동, 그리고 협력에 관해서는, 다양한 기독교인들이 있고, 외적인 모습은 다르지만 대부분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유일하고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회나 루터교, 침례교, 장로교, 심지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같은 단체에 가서 그들과 예배를 드리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하나님 이 누구신지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단 뒤에서 벌어지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성찬식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생각이나 그런 것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는 여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 사당이나 신도 차 축제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들이 우리와 같은 신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불교 사찰에 가서 겸손한 손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종교를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고, 어쩌면 우리 자신과 신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문화의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것에서 우리는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까요? 당연히 아니죠, 아시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함으로써 첫째 계명을 어길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더 영적인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신은 우리가 능력을 부여하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라는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이며, 강력하고 권능 있는 분입니다. 마틴 루터는 "당신의 마음이 무엇에 매달리고 의지하든 그것이 당신의 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좋아요. 우리가 신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정말 놀라운 이해네요. 그리고 마틴 루터는 여기서 정말 완벽해요.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신은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신이라고 말하죠.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마틴 루터가 정말 옳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매달리는 것,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사람들이 의지하고, 생각하고, 기댈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외계인이 자신들을 구해 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회색 인간들이 와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혼란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죠. 물론, 전능한 달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한 달라고 부르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를 신처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우상입니다. 모두 가짜 신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에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 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들은 모두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학은 우리 시대에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하죠. 아시죠?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 즉 기아 문제, 불의 문제도 과학적 탐구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학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과학 덕후지만, 그건 과학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과학에 매달리고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는 그들을 공동의존자라고 부릅니다. 타인에게 매달리고, 사실상 그들을 신으로 삼고, 그들이 자신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그런 위치에 서서 우리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런 영향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화하고 그토록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질문입니다 . 우리가 진정으로 매달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구를 우리의 신으로 삼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첫 번째 계명에 대한 도전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삶에서 다른 신이나 다른 권세들이 그분의 자리를 대신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앤서니 J. 토마시노 박사님의 십계명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2차시, 1계명: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